

상추없는 상추튀김... 낙지없는 낙지골목

폭염·태풍 피해로 야채·수산물값 폭등 재료마저 못구해 식당가 '이중고' 신음

상추튀김에 상추가 없고, 낙지전문점에 산낙지가 없다. 폭염과 태풍 등 이상기후 여파로 전문음식점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재료 가격이 올라 원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산지 공급량까지 줄면서 주 식재료가격이 폭등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상추튀김을 주메뉴로 선보이고 있는 광주시 동구 '은성김밥'은 지난 주말부터 상추튀김에 내놓는 상추를 열감이 배추로 바꿨다. 최근 상추 값이 6배 가까이 급등하자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대체품목으로 배추를 내놓았

다. 하지만 열감이 배추도 한 달 만에 배 이상 올라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업주의 설명이다. 광주의 남구 '채식건강촌'도 상추 등 푸른 잎 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원가 상승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사장 김모씨는 "1박스에 1만5000원 하던 상추를 이제는 10만원 가까이 뛰었다"며 "손님이 많이 올수록 부담이 되지만 가게 이미지 때문에 문을 닫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상추 등 열매류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며

"대체제인 배추나 양배추 등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다른 채소류 가격이 덩달아 뛰고 있다"고 말했다. 수산물 전문 음식점들도 주 식재료를 제 때 구하지 못해 울상이다. 폭염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한데다 태풍으로 조업일수까지 줄면서 산지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낙지전문점인 광주시 서구 '낙지한마당'은 지난 두 달 동안 산낙지를 팔지 못했다. 낙지 어획량이 줄면서 산낙지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북포여객선 터미널 앞 수산전문 식당가의 가게 수족관도 지난 주말 텅 비었다. 낙지요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한 식당은 지난 주말부터 연포탕, 탕탕이 등 산낙지가 들어간 요리를 팔지 못해 매출이 급감했다. 사장 이모씨는 "낙지를 구할 수 없는데다 어렵게 낙지를 구해와도 손님들이 비싸서 찾지 않는다"며 "장사가

안 된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어 수확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 장어 값이 폭등해 광주시 남구 '구진포 장어'도 여름 보양식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 식당 관계자는 "장어 값이 크게 올라 가격에 부담을 느낀 손님들이 장어를 찾지 않았다"며 "도매가격도 70% 넘게 올라 올 초 판매가격을 1인분에 1만3000원에서 2만3000~2만5000원으로 올렸더니 매출도 반토막 났다"고 말했다. 수협 광주공판장 관계자는 "폭염으로 수온이 상승한데다 태풍으로 조업일수도 줄고 어족자원이 고갈돼 최근엔 수산물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공판장에 들어오는 물량은 적은데 찾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성공을 기원합니다. 광주신세계 조창현(앞줄 왼쪽 두번째) 대표는 4일 광주비엔날레를 방문해 7일부터 진행되는 제9회 광주비엔날레 '라운드테이블'의 성공 개최를 위해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40대 여성취업 1년새 1만9천명 감소

불황에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 부진

경기가 어려워지자 고용시장에서 40대 여성의 이탈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종사하는 도소매나 음식점에서 취업자가 줄 뿐 아니라 아예 경제활동에 참가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4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0대 취업자 증가이 작년 동월 대비로 6월에 -4천명, 7월 -1만9000명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해당 연령대의 인구가 늘어나는데 취업자가 준 연령대는 40대가 유일했다. 20대와 30대 취업자가 감

소하는 것은 이 연령대의 취업이 어렵다는 점뿐 아니라 저출산으로 해당 연령대의 인구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작용한다. 특히 40대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3월에서 2010년 2월까지 12개월간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곤 2000년대 들어 10년 넘게 줄곧 취업자가 증가했다. 2009년 경제위기 당시엔 40대 남녀 모두 취업자가 감소했으나 이번에는 남녀간 편차가 컸다. 40대 남성은 6월 1만2000명, 7월 1만5000명 늘어 2010년 3월부터의 증

가세가 유지됐다. 이와 달리 40대 여성 취업자는 올해 들어 3월을 제외하고 계속 전년 동월 대비로 감소했다. 최근 3개월간 추이를 보면 5월 -5000명, 6월 -1만5000명, 7월 -3만4000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 산업별로는 40대 여성이 많이 일하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올해 들어 이들 업종에서 40대 여성 취업자는 줄곧 감소했다. 도·소매업에서 40대 여성 취업자는 6월에 1만3000명, 7월엔 2만5000명 줄었다. 또 숙박·음식점업도 6월 -2만8000명, 7월 -5만5000명으로 감소폭이 컸다. /연합뉴스

'콜핑' 새 모델 송승헌·박하선



최근 뉴질랜드에서 CF광고를 촬영한 송승헌(오른쪽)과 박하선. 가운데는 박하선 콜핑 대표이사. /정후식기자 who@

아웃도어 브랜드 콜핑(대표이사 박하선·울산시산악연맹회장)은 브랜드의 새 모델로 배우 송승헌과 박하선을 발탁했다. '닥터진'에서 가슴을 울리는 열연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송승헌과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박하선은 콜핑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콜핑의 얼굴로 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송승헌과 박하선은 최근 뉴질랜드에서 CF광고를 촬영했으며, 이달부터 광고와 브랜드 화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콜핑측은 "이스트리프한 마운틴 활동에 적합한 실질적인 기능성과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송승헌·박하선만의 스타일을 더해 올 가을·겨울 아웃도어 트렌드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후식기자 who@

"光銀카드 쓰면 10개월 무이자"



한달간 '愛郷 이벤트'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광주카드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가위 愛郷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가위 愛郷 이벤트'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에 행사 참여 등록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3일부터 10월 3일까지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2~10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형백화점 및 할인마트

에서 10만원 이상 매출승인 구매고객에게 이용금액의 10%를 포인트(회원별 최대 1만포인트)로 지급해 준다. 이와함께 추석 연휴 전날인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광주은행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를 포인트(최대 5000포인트)로 제공한다. 행사기간 중에 광주카드 10만원 이상 이용 고객 5명에게는 10월 4일 추첨을 통해 10월 연말에서 열리는 F1그랑프리 입장권 2매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공정위 신세계·현대백 수수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의 판매수수료를 문제를 다시 조사하고 나섰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일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의 판매수수료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제부터 2주를 계획으로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공정위에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와 대상기업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백화점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3대 백화점은 지난해 11월

중소납품업체의 절반 정도인 1천54개사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 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의 '중소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실행계획'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수수료를 형식적으로 내리거나 인하 대상 기업의 숫자만 채우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가 이번에 실행계획이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조사의 칼을 빼든 것도 이 같은 배경을 깔고 있다고 업계측은 주장했다. /연합뉴스

일시적 2주택자 3년간 가산금리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4일 보금자리론의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고객은 기존 집을 3년 안에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면 가산금리를 물지 않고 정상금리만 부담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일자를 고려해 6월29일에 기존 처분 기한이 도래한 고객에게도 새

지침을 적용해 부가된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이미 낸 가산금은 환급해 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아 가산금리를 물지 않고 있어야 하는 고객의 애로를 줄이려고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5월 10일 정부의 주택거래 정상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고품질 녹차
작은차
친환경 다원
한국 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4
T.222-2902,3973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의 명품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人的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농Set

다담Set

우전잠로

감사Set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